2022 년 03 월 17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세헌** 02)3787-5150 saehun.kim@kiwoom.com

# 미 증시,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파월 발언에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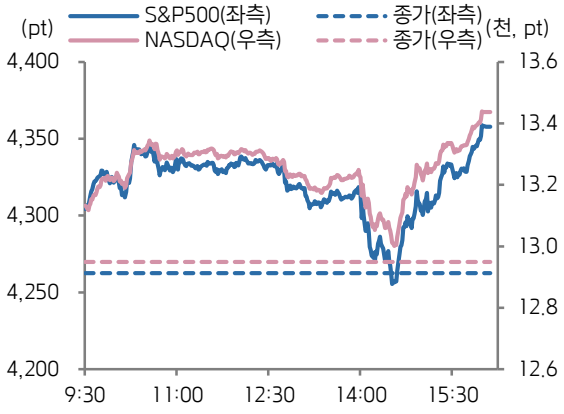
## 미국 증시 리뷰

16 일 (수) 미국 증시는 매파적인 FOMC 내용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파월 의장의 발언,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 등으로 2%대 상승 마감. S&P500 지수는 장 초반 견조한 소매판매 지표(MoM +0.3%), 중국 당국의 부양정책 발표,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 진전 조식에 힘입어 1.0% 상승 출발. 지수는 오후 FOMC 결과 발표 후, 점도표 상향 조정,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등 내용을 소화하면서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온건한 발언에 반등에 나서면서 장중 고점에서 마감. 파월 의장은 올해 미국 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등 우려감이 진정됨(다우 +1.55%, S&P500 +2.24%, 나스닥 +3.77%, 러셀 2000 +3.14%).

3 월 FOMC 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0.25~0.50%). 점도표 중간값은 올해 추가적으로 6 회(+150bp), 내년에 4 회(+100bp) 인상을 시사. 파월은 이날 성명성을 통해 다음 회의 때 QT 시작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 경제 전망에 대해선 2022 년 경제성장률(2.8%, 12 원 전망 4.0%)을 하향조정, 실업률 전망은 3.5%에 유지. 개장 전 발표된 2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증가(예상 +0.4%, 전월 +4.9%)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전년대비 기준으로 17.6% 증가(전월 +14.0%)로 견조하게 발표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날 15 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중이라고 발표.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는 몇일 안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것, 곧 우크라이나-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협상 진전 소식들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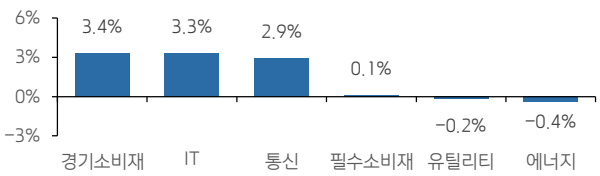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3.4%), IT(+3.3%), 통신(+2.9%) 등 대부분 상승한 반면, 에너지(-0.4%), 유틸리티(-0.2%)는 하락. 종목별로 테슬라(+4.8%), 엔비디아(+6.6%) 등 대형 기술주들의 지수 상승을 견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일 4% 급등에 이어 이날 5.0% 급등. 알리바바(+36.7%) 등 중국주들은 중국의 부양정책 발표에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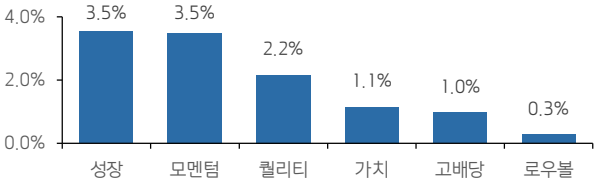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4,357.86 | +2.24% | USD/KRW | 1,235.69 | -0.58% |
| NASDAQ | 13,436.55 | +3.77% | 달러 지수 | 98.37 | -0.74% |
| 다우 | 34,063.10 | +1.55% | EUR/USD | 1.10 | -0.01% |
| VIX | 26.67 | -10.59% | USD/CNH | 6.36 | +0.01% |
| 러셀 2000 | 2,030.72 | +3.14% | USD/JPY | 118.74 | +0.01% |
| 필라. 반도체 | 3,340.07 | +5.03%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6,373.45 | +5.51% | 국고채 3 년 | 2.265 | -1.7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 년 | 2.775 | +3bp |
| Eurostoxx50 | 3,889.69 | +4.05% | 미국 국채 2 년 | 1.938 | +8.9bp |
| MSCI 전세계 지수 | 664.83 | +0.94% | 미국 국채 10 년 | 2.185 | +4.1bp |
| MSCI DM 지수 | 2,865.89 | +1.39%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1,026.77 | -2.68% | WTI | 95.04 | -1.45% |
| MSCI 한국 ETF | 70.52 | +4.38% | 금 | 1909.2 | -1.06%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4.3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8.0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2.1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3.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3 월 FOMC 결과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위험자산선호심리를 강화시킬 가능성<br>2.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 기대감에 따른 국내 주요 업체들의 부품 차질 우려 완화 여부<br>3. 원/달러 환율 급락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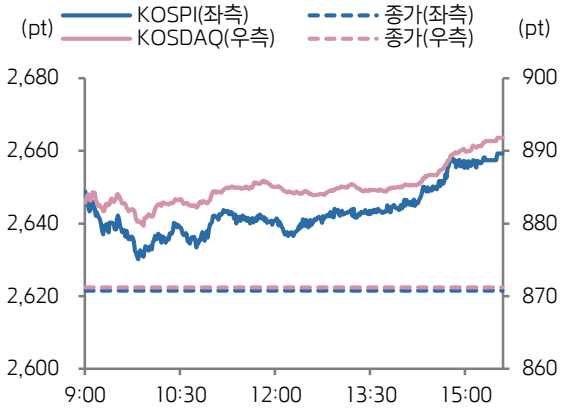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 월 FOMC 는 성명서 상으로 예상보다 좀 더 매파적인 결과물들이 있었으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것들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줬다는 측면이 안도 랠리의 배경. 점도표상 '22 년 금리인상 횟수(3 회→7 회), 물가 전망치(PCE, 2.6%→4.3%)를 상향하면서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상당부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하지만, 6 월 발표 후 하반기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적긴축도 5 월 발표로 수정됐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르면 5~6 월 내에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회의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 스태그플레이션 or 긴축정책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강력한 고용 성장, 견조한 소비 전망 등을 제시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체크 포인트. 특히 파월의장이 게임체인저라고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잠재 불안요인이 금번 FOMC 를 통해 상당부분 완화됐던 것으로 판단. 물론 4 월 7 일 공개되는 의사록을 통해 양적 긴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지난 1 월 FOMC 의사록 당시처럼), 올해 남은 6 차례 회의 마다 시행 예정인 금리인상을 시장참여자들이 감당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 다만, 1) 연준은 데이터 후행적인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2)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시 상품가격 안정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를 고려 시 매번 회의 전후로 연준 불확실성은 상존 하겠으나, 주가 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FOMC 민감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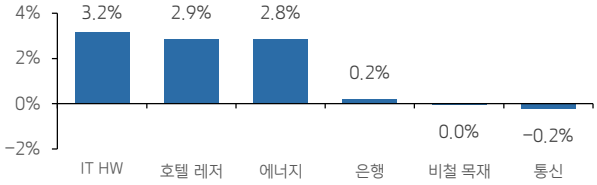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3 월 FOMC 기자회견 이후 안도랠리를 펼쳤던 미국 증시 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양국간 최근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은 한동한 부품 수급 차질 우려로 조정 압력이 컸던 반도체 등 IT 및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강화시켜줄 전망. 한동안 오버슈팅 됐던 원/달러 환율도 현재 역외에서 12 원 넘게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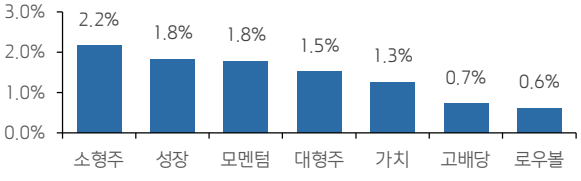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